

# 법에 의지해 진실하고 당당하게 산 수행자

## 특강-한암대종사의 수행관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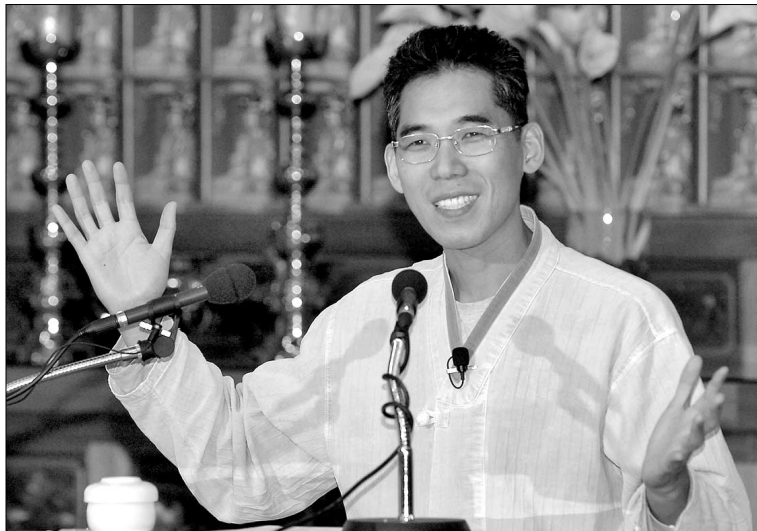
4월 14일 계속된 제2회 한암대종사 수행학림 다섯 번째 강연에 나선 동국대 인도철학과 김호성 교수는 '한암 대종사의 수행관'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암 스님은 진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선지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창조적 인생을 살았던 위인들 중 고독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고 전제하며 "한암 스님 역시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는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50세에 오대산에 입산했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다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1996년 제가 <방한암선사>라는 책을 쓴 적이 있지만 이런 대중적인 자리에서 한암 스님 관련 강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고,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한암 스님은 우리 불교역사에서도 굉장히 큰 스님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후학들이 스님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작업을 잘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한암대종사 수행학림'을 마련한 월정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한암 대종사의 수행관'입니다. 스님이 어떤 모습으로 수행에 임했고 또 후학들을 제정했다는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 나름대로 다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한암 스님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동국대 김호성 교수는 4월 14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진행한 강연을 통해 "한암 스님은 법에 의지해 진실하고 당당하게 산 수행자"라고 평가했다.

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수행

한암 스님은 자기를 위한 수행과 공부를 하였던 분입니다. 굉장히 정지하게 사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수행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셨습니다. 이런 정진 끝에 한암 스님은 28세이던 1904년에 통도사 내원선원의 조실로 추대됐고, 34세이던 1910년에는 내원선원의 선승들을 해산하고 평안북도 맹산의 우두암에서 보림(保任)하던 중 마지막 깨침을 얻습니다.

한암 스님의 철저한 자기 수행과정은 통도사 경봉 스님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 조사어록에 보면 중국의 임두 스님과 설봉 스님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명월홍금(明月胸襟)'이라는 부분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두가 활을 하면서 말하되,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문으로 훑아 들어오는 것은 집안의 보배가 아니라.'"

설봉이 말하기를 "다음날 어찌해야 옳습니까?" 임두가 말하기를 "다음날 큰 교법을 퍼뜨리고자 한다면 일일이 자기의 가슴(홍금)에서 흘러나와야 나와 더불어 하늘과 땅을 덮으리라."

설봉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합니다.

한암 스님은 이 구절을 경봉 스님에게 보내면서 진실한 자기수행의 결과가 홍금에서 나올 때까지 정진의 고패를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 진실한 삶의 자세가 중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창조적 삶을 사셨던 분들치고 고독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암 스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정도로 고독을 즐겼습니다. 한암 스님은 50세이던 1925년에 서울 봉은사 조실 소임을 놓고 오대산으로 입산 하셨습니다. 이때 스님이 남긴 말은 '고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지언정 삼춘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는 않겠다."

이후 스님은 입적에 든 1951년까지 27년간 단 한 차례도 오대산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중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의 하나인 '무아(無我)'의 경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이곳 저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참여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암 스님과 같이 오직 수행을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면서 고독을 즐기는 모습도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암일발록>에는 한암 스님이 장도환이라는 사람에게 써 준 시가 있습니다.

"어려운 깊은 마음 참으로 감사하오. 먼 길 오셨는데 화창한 봄이구려."

세간법 출세간법 내 모두 모르고서, 심산에 오래 은거함이 부끄러울 뿐이오."

저는 이시의 세 번째 구와 네 번째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간사 출세간사 일 내 알바 아니니, 부끄러이 깊은 산에 오래 숨을 뿐이오."

부끄러움의 대상은 없습니다. 오래 은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세간사 출세간사 모두 오를 관안(吾不關焉,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한암 스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 "사람이 아닌 법에 의지하라"

<숫타니파타>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한암 스님은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부처님이 간 길도 아니고 스승 경허 스님이 간 길도 아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스님은 또 법과 사람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국 근대 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가 한암 스님의 스승입니다.

한국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지만 한암 스님은 달랐습니다.

한암 스님은 당언이 직접 쓰신 <선사경허화상행장>에 법과 사람을 구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후대의 학인들이 화상(경허 스님의 법화(法化)를 배우는 것은 옳으나 화상의 행리(行履)를 배우는 것은 불가하리라 사람들이 믿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을 의지한다고 함은 진

정한 묘법을 의지한다 함이며, 스님의 행을 의지하지 않는다 함은 율의(律儀)와 불율의(不律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의지한다는 것은 스승으로 모시고 본받는 것이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득실사비(得失是非)를 보지 않는 것이니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필경에는 법도 능히 버리거늘 하물며 남의 득실사비리요."

법을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갖추어서 마음근원을 밝게 비춘다면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참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암 스님은 이 글을 통해 경허 스님의 법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후학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법에 의지해야 한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가자들.

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한암 스님은 평소 당시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한 삶의 자세가 중요하고, 항상 자신과 남에게 당당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아닌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내용입니다.

한암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상원사를 소거하러 온 군인들에게 자신을 함께 태우라며 효종을 치셨습니다. 이에 군인은 상원사의 문밖들만 뜰어내 마당에서 소각했다고 합니다. 평소 철저한 자기 수행과 정진이 없었다면 감히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끝까지 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분이 바로 한암 스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 생활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스스로가 행복하고 우리 주위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수행학림을 통해서 한암 스님의 법랑(法香)을 맡겠 느끼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평창 월정사/정리=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 ■수행학림 참가자들 소감

이번 수행학림에는 매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2박 3일의 전 일정에 동참하는 시민은 15명 안팎. 이들은 각자의 서원을 가슴에 품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수행학림에 매해 참가하고 있는 이영식(55·인천시 남구 학의동)씨는 "한암 스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직 재적 사찰도 없고 범명도 없는 초심자인 이씨는 "여러 차례 강의를 듣고 나니 한암 스님과 같은 대 선지식에 가르침을 받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수행학림 참가를 계기로 앞으로는 조금씩 수행의 바탕을 다지겠다"고 밝힌 이씨는 특히 "이상(俄

### "한암 스님같은 대선지식 가르침 받고싶어요"

를 배리고 탐진치 삼독심을 버릴 수 있도록 남은 여성동안 정진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4월 17일부터 열리는 월정사 제8기 단기출가학교 인교를 앞두고 수행학림에 참가한 문인재(56·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씨는 2기 단기출가학교를 졸업한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 수행학림에 참가했다. 문씨는 "한암 스님은 평생을 드러내지 않게 수행하신 선지식이었다"며 "요즘 스님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직장을 옮기기 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수행학림에 참가했다는 황선준(26·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씨는 "한암 스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수행학림을 계기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익요양연구원 소속 요가 지도자들과 함께 수행학림에 참가한 김민희(28)씨는 "성전 스님의 추천으로 왔는데, 스님과 교수님의 강의도 좋고 월정사 주변의 자연도 너무 좋다"며 대답하게 참가 소감을 밝혔다.

255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 제2회 경기북부 불교음악예술제

# 꽃으로 오신 임, 우리도 꽃처럼

### 초대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꽃과 호수의 자연 경관을 가진 고양시 어울림 대극장에서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와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는 "제2회 경기북부 불교음악예술제"를 "꽃으로 오신 님, 우리도 꽃처럼"이라는 주제로 고양시, 남양주시·구리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5개시 불교연합합창단이 모여 관객과 출연진이 하나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부처님을 향한 꽃과 음성공양의 환희의 법석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회장도 명**  
**사단법인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 정운문 합장**

- **일** 시: 불기 2550(2006)년 4월 27일(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 소: 고양어울림극장
- **주** 최: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 / (사)삼보불교 음악협회
- **주** 관: 고양시불교연합합창단 / (사)천수천안자원봉사단
- **후** 원: 고양시, 남양주·구리시불교사암연합회, 남양주시, 구리시 / 동두천시불교사암연합회·동두천시·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양주시 / 의정부시불교사암연합회·의정부시
- **문의전화:**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031) 969-0108 고양어울림극장 (031) 960-9600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연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맑은길 사뵈타 센터** 전통주사는 법에는 언제나 자유를 보드립니다.

아빠타 마스터 김희관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용문구 용문동 154-1 전화 010-6230-2113 · 팩 021396-2736  
http://www.arabcenter.co.kr E-mail: heegun@arabcenter.com

화엄산림-제31 품~38 품

통광 스님 (쌍계사 강주)

4월 15일 진행된 화엄산림에서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은 “화엄경 사상의 핵심은 법계연기(法界緣起)로 정리할 수 있다”며 “법계연기는 일체의 모든 것이 인연이 되고 제각기 구별이 있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무진하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무진연기(無盡緣起)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통광 스님은 또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오도를 했을 때 처음 삼십일동안 <화엄경>을 설했다. 이것은 방편설이 아닌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광 스님의 법문을 정리 요약했다.

이런 자리에서 사부대중을 뵈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 월정사와 한암 스님, 그리고 <화엄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 조실을 내리 놓고 월정사에 들어오신 한암 스님은 1936년 조계종 초대 종정에 추대되고 금강산 유점사, 건봉사 오대산 월정사에 3대 본사 승려 수련소를 설치하고, 매년 각 사찰에서 수좌 10명씩 30명을 수련생으로 모집하여 <법망경>, <화엄경>, <전등록>을 강설하셨습니다.

“

세간을 초월해야  
세간에 들어가서  
증생교화하고  
구제할 수 있다

”

한암 스님께서 강의하신 <화엄경> 강본은 통현 장자가 80권 화엄경을 토대로 하여 40권 화엄론을 저술한 <신 화엄경합론>이었습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인제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런 한암 스님의 원력은 제자인 탄허 스님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75년 무렵 월정사에서 있었던 탄허 스님의 화엄특강이 기억에 남습니다.

월정사가 바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행학원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론에 앞서 <화엄경>의 의미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불교의 대강맥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일심삼택(一心三德)이 녹아있는 대표적 경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의 핵심인 일심(一心)에 법신(法身), 반야(般若), 해탈(解脫)의 삼덕이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은 4월 15일 월정사 대법포럼에서의 법문을 통해 <화엄경> 사상의 핵심은 법계연기”라고 강조했다.

바로 <화엄경>의 요지라고 밝히셨습니다. 불교의 목적도 그렇지만 <화엄경>을 설했던 목적 역시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온갖 것이 그대로 비로자나불이고 화엄세계라는 것이지요.

<화엄경>은 “초설화엄삼십일(初說華嚴三七日)”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오도를 했을 때 처음 삼십일동안 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방편설이 아닌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화엄경> 사상의 핵심은 법계연기(法界緣起)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계연기는 일체의 모든 것이 인연이 되고 제각기 구별이 있어 모든 곳에서 동시에 무진하게 일어난다는 뜻으로 무진연기(無盡緣起)라고도 합니다. 무진연기는 다시 이법계(理法界), 사법계(事法界),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로 나뉩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법계는 절대 진리, 사법계는 삼라만상의 현상을 말합니다. 이사무애법계는 진리와 현상이 서로 걸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사무애법계란 쉽게 말해서 겨자씨 한 알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갈 수 있

는 것처럼 우주 만물이 서로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화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화엄경>을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보면 대방광불(大方廣佛)은 본지(本智)를 표(標)한 것이요, 화엄경(華嚴經)은 묘용(妙用)을 말한 것입니다. 본지(本智)는 평등불성(平等佛性)이고 묘행(妙行)은 본진덕용(本眞德用)입니다.

글자마다의 구체적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대(大)는 체성(體性)이 밖이 없이(無外) 커서 품틀거리는 발레들과 어리석은 아들과 현명한 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體大). 방(方)은 상모(相貌)가 법계와 같아서 방정(方正)하고 평등(平等)하여 변천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相大). 광(廣)은 작용(作用)이 태허와 같아서 두루 하고 온갖 것을 포용하여 장애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用大).

불(佛)은 체, 상, 용 본지(本智)를 깨달아 증득(證得)한 결과(結果)를, 화(華)는 만행인 꽃이니, 깨달음의 열매(果)에 대해 꽃을 말한 것입니다.

또 엄(嚴)은 만행인 꽃으로서 깨달음의 열매인 부처를 장엄하되 마음도 있고 비출도 없어서 장엄함과 장엄하

지 않을도 없으니 복지행원(福智行願)과 온갖 덕이 원만하여 이에 십신 비로자나를 증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經)은 소전(所詮)의 법(法)을 관설(貫顯)하여 일정한 체(體)가 되어서 만세(萬世)에 변역(變易)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화엄경>을 해설한 청량정관 스님은 “비록 텅 비고 텅 비어 자취가 끊어졌으나 진리의 하늘에는 못 별들이 잔연히 빛나고, 맑고 맑아서 말을 붙일 수 없으나 가르침의 바다에는 그 물결 호한(浩濶)·한없이 넓은 모양)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관 스님은 80권 화엄경을 7처 9회 39품으로 나누고, 신해행증(信解行證)으로써 화엄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제31품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부터 38품 이세간품(離世間品)까지입니다.

제31품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은 모든 부처님 세계의 수명에 대해 심왕보살이 말한 것으로 사바세계의 한 집(劫)은 극락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되고 극락세계의 한 겁은 부처님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즉, 이 사바세계인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의 한 겁은 극락세계 ‘아미타불 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되고, 극락세계의 한 겁은 가사담 세계의 ‘금강견 부처님 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됩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이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마지막 세계의 한 겁은 승련화 세계의 하루 낮 하루 밤이 되며, 보현보살과 함께 수행하는 큰 보살들이 모두 그 가운데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품에서는 깨닫지 못한 자에게 한계를 지어서 여래의 수량무진을 알게 하므로 작은 것으로부터 많은 것, 짧은 것으로부터 긴 것을 나타내 마지막에는 10불의 수명이 무진함을 설한 것입니다.

제32품은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입니다. 말 그대로 팔방의 산과 바다에 모두 보살의 거처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소를 가리지 않고 증생을 교화한다는 말입니다.

동방에는 선인산이 있고 남방에는 승봉산, 서방에는 금강염산, 북방에는 향작산이 있으니 사방의 산 모두에 보살들이 그들의 권속과 함께 살면서 법을 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다도 이와 같습니다.

“

하나의 아름다움 가운데  
많은 광명이 있어서  
가없는 세계를  
청정케 한다

”

제33품 불부사의품(佛不思議品)은 부처님의 과법(果法)과 지덕(智德)이 심광(深廣)하고 초월하여 식정(識情)의 사의(思議)로 미칠 바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身)·구(口)·지업(智業)을 설명한 내용으로 불부사의해탈품(佛不思議解脱品)이라고도 합니다. 이 품의 발주인 청련화 보살은 세존은 머무시는 곳이 한량이 없으며, 또 그치않는 청정한 몸과 걸림 없는 눈들의 열 가지 법이 있어 법계에 두루 하고, 또 열 가지 지혜, 열 가지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34품 심신상해품(身心相海品)에서 보현보살은 여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덕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래의 정수리에는 보배로 장엄한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 한량없는 광명의 그늘이 있어 여러 가지 광명을 비춥니다.

여래의 눈 코 혀 입 이 어깨 가슴 손 발 발가락에

도 97가지의 거룩한 모습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많은 양의 거룩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제35품 수호공덕품(護好功德品)에서도 역시 티끌의 수와 같이 많은 상(相)을 따라서 티끌 수와 같이 많은 호(好)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은 모습이 고 호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의 아름다움 가운데 많은 광명이 있어서 가없는 세계를 청정하게 하고, 무간 지옥에 들어갈 중죄에서 벗어나 공덕이 불가사의한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금강경>에는 32상 80종호가 있으며 <화엄경>에는 97상에 각각의 호(好)가 있습니다.

제36품 보현행품(普賢行品)은 보현보살의 평등한 인행(因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래는 교화를 받을 증생을 위하여 세상에 난다. 보살은 모든 증생을 버리지 않으며 여러 다른 보살들을 여래와 같이 생각한다. 부처님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여 보살행을 좋아하며, 열 가지 법을 닦아서 열 가지 청정함을 구족한다. 그리고 열 가지 광대한 법을 갖추고 열 가지 두루한 곳에 들어가며, 열 가지 묘한 마음에 머물러서 열 가지 부처님 법의 교묘한 지혜를 얻으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평등하게 된다”고 보현보살은 강설합니다.

제37품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에서는 십신(十信)으로부터 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 닦아 여기에 이르러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와 자비의 행이 원만해지면 본지(本智)가 자성(自性)으로부터 솟아 일어나서 묘덕(妙德)이 원만히 갖추어 지어 줍니다.

처음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서 믿음을 내어 오위(五位)를 겪으며 나아가 닦아 11지(地)에 이르러 불과(佛果)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즉 앞의 보현행품은 평등한 인(因)을 말한 것이고, 이번 품에서는 평등한 과(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래출현품을 보통 성기품(性起品), 즉 불성이 드러나는 품이라고도 합니다.

제38품은 이세간품(離世間品)입니다. 이 품은 말 그대로 세간을 초월해야 세간에 들어가서 증생을 교화하고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재동자가 발심을 해서 53선지식을 찾아가 도를 성취한다는 내용이 제39품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엄경>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미 많은 법사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화엄경> 안에 있는 내용이지만, <화엄경>에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걸쳐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 고립적이고 독존적인 존재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곧 일체요, 일체는 곧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도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부처님의 행만 닦으면 됩니다. 증생의 행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뜻을 가슴에 잘 새겨서 앞으로도 열심히 수행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창 월정사/정리=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 불자님들 스스로, 가정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통 침술, 한약, 기공 대특강

본 활인정사내 『동양의학방송국』에서는 중생구제를 위한 일환으로 불자님들에게 건강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양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동양의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 5. 3 - 10, 31(6개월)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 장 소 : 활인정사내 동양의학방송국 대강당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강의일정

시 간	과 목	강 사	내 용
오전 10시-12시	전통 침술	덕운스님	불가에서 내려오는 응급 상용 침술법 (중풍, 두통, 체기, 위장장애 등등)
오후 1시-3시	한약	박정아 한의학 석사	스스로 건강 지키는 한방차 (계절과 각종 질환에 맞는 한약차)
오후 3시-5시	웰빙 기공	소요 기공 연구가	웰빙 양생기공 (전통기공, 태극권, 명상 등등)
강사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운 스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불교 태고종 대덕스님</li> <li>· 중국 한의사</li> <li>· 사단법인 한국서화작가회 초대작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정아 한약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의학 석사 · 외과학 박사</li> <li>·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연구원</li> <li>· 사단법인 대한한약사회 이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 기공연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기공전공</li> <li>· 한국 노동교육원 교수 역임</li> <li>· 저서 [웰빙기공10원]노자의 길경자의 길-근간</li> </ul> </li> </ul>

- 접수기간 : 4월 20일 - 5월 2일까지
- 접수인원 : 선착순 20명(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회 비 : 각 과목당 4만원 (불교인 50%할인)
- 문 의 : ☎ 02)3487-2311 / H·P 011-335-9351



(제대현불교진흥원(이산장 총총회)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의 만나는 유익한 잡지)

**성전 스님의 2006 신사의 풍경소리** | 나의 행자시절  
**특집 | 깨닫힌 마음, 깨닫힌 세상 2006 청정운동**  
 “내가 바빠야 세상이 바뀐다”  
 지난 1996년과 1997년에 이어 2006년 다시 시작되는 ‘깨닫힌 마음, 깨닫힌 세상’을 만드자는 불자들의 신명개혁신동인 ‘청정운동’을 소개합니다.  
 왜 다시 청정운동을 운동인가?  
 제1차 청정운동의 성과와 불교운동의 병행  
 2006 청정운동 이렇게 실천하자

**특별기획 | 미국불교의 현상 속으로 3**  
 한국불교는 미국에서 무명으로 살아가려 하나 미국 것(佛)인 40년이 지난 전통불교의 한국불교가 미국 내 개척불교운동의 중심축이 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는 현지 취재기  
 1. 미국 동 · 서부지역 주요 한국사찰 탐방  
 2. 미국사에 있는 한국불교 · 미국 내 한국사찰 명부

**증평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 6. 선의 기원과 간략한 역사  
**지상중계** | 미얀마 파옥 사야도가 지도하는 호프룬수 수행법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열린불교, 열린명령** ● 한마음선원 리포트

**군법사 포교기** | 강원도 양구 노도부대 의선사, 백태현 법사  
**한호를 읽고 떠나는 여행** | 어느 노부부의 들꽃사랑 이야기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문화기획** | 소설가 김중묵이 쓰는 ‘백이갑에서 만나는 신화와 불교’  
**진언의들민을 찾아서** | 한국자수박물관  
**국제불교 신학** | 미국 하버드대학 일반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관음 먹고 종교를 버려보자”  
**해외동신 | 옥스퍼드에서 떠나는 편지**  
 영국의 작은마을엔, 옥스퍼드 두 박물관에서 문화의 힘을 느끼다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법상**  
 나쁜한 분남을 위한 신약사 별치  
**건강에세이** | 건강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 치유법  
**역물시대 수행열전** | 조선시대 연백 파선으로 아들을 말한 이들  
**생각 속의 불교성찰** | 명색(名色), 문질(문질)에서 결매기인 그 오묘함에 대하여  
**고전원가의 즐거움** | 외롭고 한가한 수행사, 법주사 고한(高閑) 대사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이머원** ● 서울의 옛다리